

“사도바울의 권면”

빌립보서 4:4-7

사도 바울은 빌 4:8 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이고 둘째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올해는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고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바울은 이 짧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에 관하여 19 번이나 말합니다. 기쁨이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즐거워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기쁨이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 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은 내 마음의 내면적 선택입니다. 기쁨이란 태도요, 선택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진급해서 좋은 차나 좋은 집을 사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도무지 기쁨 이유가 없는데 부도가 났는데 진급에서 누락되었는데 병들어 입원했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 기쁨을 베드로 사도는 벰전 1:8 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최근에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딘가 막혀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기뻐할 때는 사업이나 직장에서 잘 된단지 자녀가 좋은 성적을 얻어서 좋은 대학에 합격 했단지 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복을 받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저절로 기뻐하지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없을 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서 기쁨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인의 가장 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죄가 있으면 기쁨은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가 고백함으로 기쁨을 되찾아야 합니다. 가만이 있으면 저절로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자꾸 파먹고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영혼은 굶주립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기쁨이 사라지듯 말씀에 주린 영혼도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새해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기독교인의 3 대 생활 강령에도 살전 5:16 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뻐할 생각이 나거든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 했습니다. 아무리 안 기쁘더라도 기뻐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기쁨이 없는 곳에 기뻐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을 용납하는 삶을 살았는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가우시니라” (빌 4:5)

관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그릇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서 내게 잘못된 사람을 몇번 용서 하리이까 일곱 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큰 맘 먹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곱 번 용서하는 것, 굉장히 큰 마음입니다. 남편을 일곱 번 용서하고 아내를 일곱 번 용서할 수 있으면 굉장하지요. 그

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만히 보시더니 이 사람이, 하루에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용납하고 관용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겼는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닥쳐 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더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이 병으로 죽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염려들은 우리 영혼의 독과 같아서 일단 한번 물리게 되면 통통 붓게 되고 나중에는 삶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하면 우리 속에 있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교감신경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심장이 펠럭펠럭 뛰고 마음이 상하면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며 소변이 색노랗게 나오고 이것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교감신경을 작용해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가지고 편안하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고치고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 6:25)**

우리가 염려, 근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심을 걱정만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염려, 근심을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해무익합니다. 근심걱정 한다고 환경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한다고 살 사람이 못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병든 사람이 걱정한다고 낫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이 염려 한다고 안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생

로병사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 6:27)** 영어성경에는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걱정한다고 한시간이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염려는 다 헛것이란 것입니다.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이 오고 염려가 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만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종이라면 주인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주인같이 살게 하셨습니다. 집도 직장도 자식도 몸도 내 것처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것은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축복받고 기분이 좋았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전부 엉터리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입술의 고백을 친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원통해도 입을 잘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지난 한 해 동안 입술로 승리하신 지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삶, 관용하는 삶,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7)**

나눔의 시간

1. 2018 년도 한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나눔 안에 “주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기쁨은 허물을 용납하는 것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용서하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요? 예수님처럼 무한정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3. 2019 년도를 시작하며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걱정, 근심, 염려의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로 나눠주시고 이를 위해서 서로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